

셀럽 아닌 퍼포머...블랙핑크, 월드투어 성장史 통한 '자기증명'

재계약 여부 공개 앞두고 두 번째 월드투어 '본 핑크' 피날레 지난 11개월간 세계 34개 도시 66회 공연...180만명 운집해 "앞으로도 멋있는 블랙핑크가 되겠습니다"...원팀 지속 예고

‘고급 백화점 1층 점령’ 걸그룹. 수많은 여성들이 따라하는 선망의 대상인 ‘블랙핑크’는 셀러브리티 이미지가 강하다. 데뷔 7주년(8월8일)을 기념 최근엔 각종 소문이 무성했다. 블랙핑크가 17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펼친 두 번째 월드 투어 ‘본 핑크 - 파이널 인 서울’은 왜 이 팀이 셀럽을 넘어 퍼포머로서 K팝 간판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무대였다.

K팝 걸그룹 처음으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 임성한 블랙핑크는 전날과 이날 각각 1만 7500명씩 약 3만5000명을 불러 모았다. 특히 이날 공연은 지난 11개월간 전 세계 34개 도시를 돌며 66회 공연을 통해 약 180만명을 끌어 모은 월드 투어 ‘본 핑크’ 피날레였다. 의미가 큰 공연인 만큼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다수의 팬들이 몰려 들었다.

제니가 막바지에 ‘다사다난했다’고 표현했을 만큼, 이번 투어는 사실 쉽지 않았다.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은 블랙핑크가 지난 7월 스타드 드 프랑스(Stade De France)에서 연 현지 앙코르 공연에 대해 좋지 않은 평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월드 투어 전체 맥락에서 블랙핑크는 무럭무럭 성장했다. 아레나급인 지난해 10월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옛 체조경

기장에서 출발한 이번 투어는 스타드 드 프랑스, 미국 메트로라이프-일리노이트 스타디움·오라클 파크·다저 스타디움 등 해외 유명 스타디움을 거쳐 국내를 대표하는 돔 공연장인 고척스카이돔에서 마무리됐다. 고척스카이돔에서 단독 공연한 K팝 걸그룹은 블랙핑크가 유일하다.

1년도 안 돼 30여개 도시에서 60회 넘게 공연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비행기를 끊임없이 타고 시차를 이겨 내는데 상당한 체력이 요구된다. 지수의 솔로 활동, 제니의 드라마 ‘미 아미들’ 출연과 프로모션 등 블랙핑크 멤버들은 각자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를 능히 감당해냈다. 특히 지난 4월엔 세계 최대 대중음악 축제 로스앤젤레스 ‘코첼라’라 벨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에 K팝 아티스트 최초로 헤드라이너로 나서기도 했다. 하나의 월드투어로 180만명을 끌어모은 건 ‘방탄소년단’(BTS)의 ‘러브유어셀프’(205만명)를 잇는 K팝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투어의 반환점도 같았던 코첼라에서 등장한 한옥 양식의 기와지붕 무대 세트 등 투어 중간에 무대 연출과 세트리스트를 일부 변경한 블랙핑크는 끊임없이 성장을 꾀했고 진화했다. 이날이 그 화룡점정이었다.

“하우 유 라이크 댓”(HYLT) ‘휘파람’ ‘러브식 걸즈’ ‘뚜두뚜두’ ‘봄바야’ ‘마지막처럼’ 등

히트곡을 부를 때는 때장이 쏟아져 나왔고,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1위 음반인 정규 2집 ‘본 핑크’ 수록곡 ‘핑크 베놈’과 ‘셋 다우’ 무대에선 큰 함성이 쏟아졌다.

개별 무대에선 일취월장(日就月將)한 멤버들의 기량을 확인했다. 제니는 풀 문(Full Moon)이 가득한 스크린을 배경으로 남성 댄서와 듀엣 춤을 아름답게 연출한 ‘유 앤드 미’로 몽환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로제는 ‘곤’과 ‘온 더 그라운드’를 연이어 부르며 로킹한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이번 월드투어 첫 공연인 서울 무대에서 쿠바 태생의 팝스타 카밀라 카베요의 ‘라이어’ 커버 무대를 화려하게 소화했던 지수는 이번 투어 도중 발표한 자신의 첫 솔로곡 ‘꽃’ 무대로 큰 호응을 얻었다. 리사는 ‘머니’ 무대에서 더 화려해진 랩·춤 실력을 뽐냈다.

또 이날 공연에선 블랙핑크 멤버들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간 재계약 확정 여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입장이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컸다.

무엇보다 멤버들은 이날 무대로, 멘트로 끈끈한 우애를 자랑했다. 제니는 “지난 1년간 다사다난했어. 비행기를 타고 많은 시간을 이동해야 했는데 건강하게 서로를 이끌어준 멤버들이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데뷔한 지 7주년이 됐는데, 돌아보면



멋있고 좋은 모습을 한국 블랙핑크에게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번 ‘본 핑크’ 앙코르 피날레를 서울에서 하게 돼 행복하고 감사해요. 앞으로도 멋있는 블랙핑크가 되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지수도 “공연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투어를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감사했다. 로제 역시 “1년 내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지만, 항상 팬들과 하나 된 느낌이 있었어요. 영원히 이별 것만 같은 느낌”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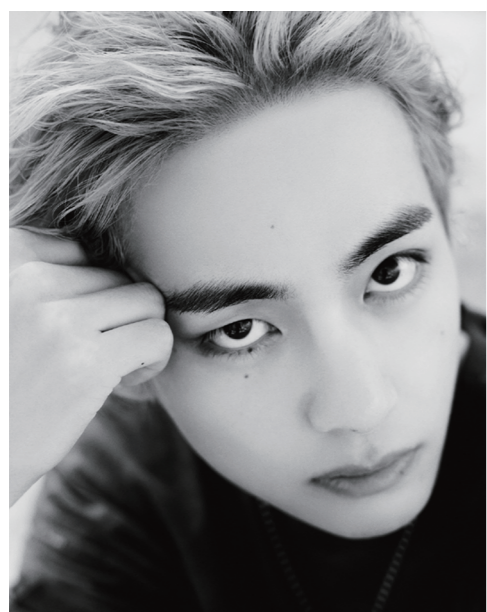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온 리사는 “블링블링을 만난 지 2596일이 됐어요. 다양하고 대단한 공연장에서 무대를 했는데, 블랙핑크가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멋진 경험을 할 수 있

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의 20대를 빛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블랙핑크 멤버들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번 투어, 특히 이날 공연은 멤버들이 쇄신과 변화를 시작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블랙핑크의 조바심 속에서도 블랙핑크가 계속될 것임을 공언한 자리이기도 했다.

K팝 스타는 더 이상 본인들 것만이 아니다. K팝 스타를 스타로 만드는 데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건 팬덤이다. 팬들과 스타에 대한 감사함을 잃지 않은 블랙핑크 멤버들은 최고의 위치에서 초심을 잃지 않으며, 고무적인 면모를 보였다. 이 성장이 더 탄력을 받는다면 블랙핑크 멤버들의 원팀은 지속될 것이다. 이날 공연은 블랙핑크 자신들도 도달해본 적이 없는 K팝 걸그룹의 경지를 상상한 자리였다.

방탄소년단 뷁 ‘레이오버’, ‘빌보드 200’ 2위 데뷔...지민·슈가와 타이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뷁(V·김태형)가 첫 솔로 앨범 ‘레이오버(Layover)’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K팝 솔로 가수 최고 성적과 동등한 기록을 세웠다. 방탄소년단 팀 동료들인 지민과 슈가(SUGA)가 각각 솔로 앨범 ‘페이스(FACE)’와 ‘디-데이(D-DAY)’로 거둔 성적과 타이틀 이었다.

17일(현지시간) 빌보드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23일자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뷁가 지

‘뷔와 그레미 꺾속말 인연’ 올리비아 로드리고 정규 2집 ‘거츠’ 1위 데뷔

난 8일 발매한 ‘레이오버’는 10만장 상당의 판매량으로 ‘빌보드 200’에서 2위로 데뷔했다.

‘빌보드 200’ 순위는 전통적인 음반 판매량 점수에 스트리밍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SEA(streaming equivalent albums),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TEA(track equivalent albums)를 합산해 매긴다. ‘레이오버’ 물리적 음반 판매량은 8만8000장이다. SEA 유닛은 9000장, TEA 유닛은 3000장이다.

방탄소년단 팀으로서 ‘빌보드 200’ 1위를 여섯 차례 차지한 뷁가 솔로로서 해당 차트 톱2에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K팝 솔로 ‘빌보드 200’ 상위 톱5는 모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점유하고 있다. 뷁·지민·슈가 외에 RM(김남준) ‘인디고’가 3위, 제이홉 ‘잭 인 더 박스’가 6위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 다른 멤버들인 진과 정국은 솔로 싱글만 냈을 뿐 솔로 앨범을 아직 내지 않았다.

뷔의 이번 ‘레이오버’는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 제작자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총괄 프로듀서로 나서 화제가 됐다. 첫 주에 국내의 판매량 210만장으로 ‘더블 밀리언셀러’가 됐다. 국내 음반 판매량 조사사이트 한터차트 집계 이래 솔로 앨범으로는 처음으로 초동(음

에이티즈, 첫 쇼 투어 성료...6개국 순회



그들 ‘에이티즈(ATEEZ)’가 남미 투어에 이어 아시아 투어를 성료했다.

18일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이티즈는 지난 16일 필리핀 마닐라 아라네타 콜로세움(ARANETA COLISEUM)에서 아시아 투어 2023 “더 펠로우십 : 브레이크 더 월”인 아시아(THE FELLOWSHIP : BREAK THE WALL in ASIA)의 막을 내렸다.

“더 펠로우십 : 브레이크 더 월”인 아시아는 에이티즈는 첫 아시아 투어이다. 지난 7월 8일 타이베이에서 시작으로 15일 홍콩, 20일 제다, 8월 5일 방콕, 이달 9일 싱가포르, 이번 마닐라까지

총 6개국을 순회했다.

특히 에이티즈는 4세대 K팝 아티스트 중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전체 K팝 팀 중에선 ‘슈퍼주니어(SUPER JUNIOR)’, ‘방탄소년단(BTS)’, ‘블랙핑크(BLACKPINK)’의 뒤를 이은 네 번째 주자다.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선 리애나(Rihanna), 콜드 플레이(Coldplay), 마룬 파이브(Maroon 5) 등이 공연했다. 마닐라의 아라네타 콜로세움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실내 경기장 중 하나다.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브루노 마스(Bruno Mars), 라우브(Lauv) 등이 거쳤었다.

에이티즈는 KQ를 통해 “공연을 하면서 에이티즈(공식 팬덤명)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인생의 이유는 에이티즈이다. 앞으로도 에이티즈와 함께하며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생각에 행복하다.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했다.

한편, 에이티즈는 23일 MBC 라디오 ‘아이돌 라디오 라이브 인 서울(IDOL RADIO LIVE IN SEOUL)’에 출연한다.

올해 최고의 작품은?...서울드라마어워즈 20일 개막

44개국 344개 작품 참여...역대 최대 출품

올해로 18회를 맞은 ‘서울드라마어워즈’가 오는 20일 막이 오른다. 역대 최대 출품 규모인 44개국 344개 작품이 참여한다.

서울드라마어워즈는 드라마 단일 분야로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시상식이다. 매년 40~60개국을 대표하는 300여 편의 드라마가 경쟁하며 해마다 50여명의 국내·외 수상자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영상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와 ‘서울’을 드라마 산업의 허브로 브랜드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부터 후원하고 있다.

20일부터 22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된다. 본 행사인 시상식과 함께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드라마를 주제로 한 콘서트와 상영회 등이 진

행된다.

시상식은 21일 오후 6시부터 KBS홀에서 개최되며 KBS 2TV를 통해 생중계된다.

행사에 앞서 일반 시민들도 현장에서 국내외 방송인, 배우를 직접 볼 수 있는 레드카펫 행사가 오후 4시30분부터 KBS홀 광장에서 진행된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올해는 작년 보다 100편 이상 출품작이 늘어나 최대 규모인 344개 작품이 경합을 벌였다.

시상식 전후인 20일과 22일에는 서울시민들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열린다. ▲드라마상영회 ▲드라마 OST 콘서트 ▲드라마 토크 콘서트가 마련됐다.

송호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한류



열풍의 시작이자, 중심에 있는 K-드라마의 위상을 알리고, 다양한 주제와 유행 채널의 다변화로 국내외 드라마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 시민에게 이러한 국제적 문화 행사를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바투 ‘제로 바이 원 러브송’도 넘겼다

4세대 K팝 간판 보이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뮤직비디오 1억 뷰 돌파 기록을 추가했다.

17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지난 2021년 5월 발표한 정규 2집 ‘혼돈의 장: 프리즈(FREEZE)’의 타이틀곡 ‘제로 바이 원 러브송’(OXI=LOVESONG(I Know I Love You) feat. Seori)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가 이날 오전 8시40분께 1억 건을 넘어섰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이로써 ‘어느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CROWN)’, ‘5시 53분의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9와 4분의 3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Run Away)’, ‘캣 앤드 도그(Cat & Dog)’, ‘슈가 러시 라이드(Sugar Rush Ride)’에 이어 통산 6번째 1억 뷰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게 됐다.

하이브리드 팝 록 장르인 ‘제로 바이 원 러브송’은 혼돈 속에서 만난 너를 향한 사랑만을 확실하다고 믿는 소년의 ‘자기 확신적’ 사랑을 노래한다.

